

코로나 비상, 대구·경북에 온정의 물결

## 아산재단 10억, 정몽준 이사장 10억 기부

관련 기관에 총 20억 전달키로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20억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재단에서 10억원을 지원하며,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사진)이 10억원을 내기로 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농심, 신라면 20만개 긴급지원

전국재해구호협회 통해 전달

농심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에 신라면 20만개를 긴급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심은 코로나19로 야기된 재난상황으로 인해 자가격리된 시민과 취약계층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농심이 지원한 신라면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농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



농심 본사 전경

/농심

른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예방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

## 이베이코리아, 1억 상당 위생용품 전달

손소독제·마스크 등 지원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기업 이베이코리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대구·경북 지역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총 1억원 규모의 위생용품을 긴급 지원한다.

‘도움이 절실한 현장에 정확히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자’는 기조 아래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행해온 만큼 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구·경북지역 소



방본부와 자가격리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대체인력들에게 위생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베이코리아 서민석 부사장은 “전 국민이 감염병 사태 극복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있는 만큼 이베이코리아도 가장 필요한 곳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지원하는 기조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서울장수 생막걸리 주류대상서 ‘대상’

서울장수는 2020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장수 생막걸리’, ‘장흥삼 장수 막걸리’ 등 2개 제품이 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7회째 열린 대한민국 주류대상은 좋은 술을 널리 알리고 건전한 주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우리술, 소주, 위스

키·스피릿, 사케, 맥주, 와인 등 다양한 주종에 대한 평가가 진행됐다.

장수 생막걸리는 ‘우리술 탁주 생막걸리’ 일반주류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장흥삼 장수막걸리는 ‘우리술 탁주 살균막걸리’ 일반주류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김민지 기자

## 스타벅스, 삼일절 기념 무궁화머그 선보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삼일절을 맞아 무궁화를 모티브로 한 상품을 전국 매장에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무궁화 머그 340ml’은 머그 림과 아트워크 라인이 리얼 골드로 표현되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고 깨끗한 도자기 상품으로 특유의 맑은 느낌이 도드라진다. ‘20 SS 무궁화 트로이 텀블러 355ml’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텀블러로 금색 라인이 들어간 디자인과 함께 전통 한복 패턴을 모던하게 재해석해

단아한 느낌을 강조했다.

신상품은 한데 모여 피어나는 무궁화의 아름답고 단아한 모습을 표현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각 상품 후면에 ‘무궁화 우리나라 꽃 2020’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스타벅스는 이번 삼일절 상품 판매 수익금 1억 원을 조성해 오는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자손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후원 사업에 사용한다.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



정병용 교수

기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나라 경제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저비용항공사에 3000억원의 긴급유자를 비롯하여 해운·관광·외식산업에 42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관광업계를 비롯하여 여행·항공·외식업계 모두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지금은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로, 단기적 경기부양도 해야 되고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2003년의 사스나 2012년의 메르스와 같은 일이 해가 지날수록 찾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국민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철저히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산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고 있지만 국민스

스로가 건강을 지키고 방역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겠다.

또 한가지 명심하여야 할 점은 SNS를 통한 가짜뉴스의 유포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개인은 이런 기회를 전화위부의 기회로 삼고 평정심을 유지하면 한다.

이 기회에 그간 중국과 일본에 치우쳤던 외래관광시장도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외래입국자의 수도 권 편향 관광이나 보따리 장사에 치우쳤던 저질 관광상품에 대한 성찰도 있어야 할 것이다. 내수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민이나 사업자들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자세로 좀 더 느긋하게 성찰하고 유연한 자세로 일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같은 어려운 시기는 역사사지하는 성찰과 전화위부의 기회로 삼으면 한다.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 데는 다른 한편 우리의 삶의 질과 위생수준이 더 나아졌는데도 기인할 것이다. 나아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질병에 대한 감별력도 더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전 같으면 모두 독감 정도로 알고 지나갔을 지도 모른다. 위생과 청결수준을 올린만큼 면역체계는 더욱 떨어진 것도 한몫을 하였을 것이고, 방역체계

이상의 새로운 질병이 나타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전염병 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고 더욱 빈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이번 사태로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으로는 중국이라는 변수이다. 특히 관광산업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국 경제는 특히 관광산업은 전염병과 중국이라는 변수를 하나의 커다란 상수로 여기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경제는 사이클이 있기 마련인데, 일회일비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 두 변수를 상수로써 염두에 두고 대처해나갔으면 한다.

여가 관광에 대한 욕구는 소득의 증가 수준을 앞질러 상승하고 있으며, 여가·관광 산업은 유사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질병이나 정치, 경제 혹은 환경적 변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후퇴하는 일은 있었지만, 길게 보면 여가·관광 산업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몇 날 몇 달이 걸릴지 몰라 불안 가득 보이는 이 사태가 원만히 극복되었을 때, 우리는 외부 손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며, 곧 도래할 호황기에 예년 수준 이상의 여가관광욕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생각해야 한다.

/순천대학교 교수, 한국관광학회

## 현대백그룹, 코로나19 비상 대구에 10억 지원

의료진·지원봉사자 등 위해 생필품·위생용품 추가 지원도



현대백화점그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에 1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지역의 감염 확산 방지 및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금 1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다고 27일 밝

혔다.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의 피해 확산 방지와 복구 지원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500억원을 긴급 조성해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다. 긴급 자금이 필요한 협력사의 경우 업체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아디다스 엠베서더로 손흥민·화사·이정후 선정

아디다스는 러닝 캠페인 ‘FASTER THAN: ~보다 빠르게’를 런칭하고 더욱 새로워진 러닝화 ‘울트라부스트20’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손흥민, 화

사, 이정후가 캠페인 엠베서더로 선정됐으며, 이들을 모델로 한 화보와 영상이 차례로 공개될 예정이다.

아디다스 ‘FASTER THAN: ~보다

빠르게’ 캠페인은 ‘빠름’의 기준이 스피드와 기록이 아닌 개인의 만족과 성취감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러닝을 통해 좀 더 나은 자신이 되어가는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스토리를 통해 빠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제시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인사

-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물류시설정보과장 한성수
- ◆새만금개발청 △교류협력과장 서정관 △사업총괄과장 박종민
- ◆매일일보 △산업부장(부국장) 송영택
- ◆국민대 △대외협력처장 김병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 이태희
- ◆경상대학교 △인문대학장 주혁규(영어영문학과) △간호대학장 은영(간호학과) △인문대학 부학장 김정필(중어중문학과) △인권센터장 박상식(해양경찰시스템학과)

△공학교육혁신센터장 차춘남(산업시스템공학과) △수의과대학 부속동물병원장 유도현(수의학과) △기초과학연구소장 이준화(화학) △인권사회발전연구소장 이민규(심리학과)

### 부음

▲황용경씨 별세, 안상락·안상훈(한국수출입은행 남북협력총괄부장)·안상필(한국철도공사)씨 모친상=27일 오전 3시 50분,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302호, 발인 29일 오전 6시.

▲권현경씨 별세, 한병구(전 인천도시가스 상임감사)씨 부인상, 한석현(전 SBS PD)·한지희씨 모친상, 김주한(한국필름모리스 상무)씨 장모상=27일 오전 2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9일 오전 11시 30분, 장지 경기도 광주 시안추모공원.

▲김복남씨 별세, 우현욱(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근무)씨 모친상, 김동근(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경서부지회장)·임준형(코너스톤개발 대표)·제갈철오(세인디앤씨 대표)씨 장모상=27일, 성서계명대동산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